



아시아 시장의 자유화와 석유산업 규안법

지난해 11월 11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에서 선진국은 오는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을 목표로 역내의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는「보고르 선언」을 채택했다. 이것은 아시아를 광역대규모시장으로 만든다는 선언이지만, 목표와 내용·방법중 정해진게 아무것도 없는 극히「아시아적」인 합의이다. 그러나 이 선언이 각국 지역의 경제·통상·투자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APEC의 광역시장 선언

일본경제신문은「아시아 대경쟁시대」로 표제를 붙인

특집에서「유례없는 대규모의 경쟁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 냉전 종식으로 상대적으로 안전보장에 신경 쓸 필요성이 적어진 선진국은, 경제적 이익추구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추월을 목표로 선진국의 자본, 기술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와 국가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전세계적으로 대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주적전장은 아시아다. 美國, 유럽, 일본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기업들이 국력을 이용해 새로운 시장의 지배권을 다투고 있다('94. 1. 16일자)고 전하고 있다.

저널리즘 특유의 센세이셔널한 논조이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이「자유화」라는 큰 변화의 비전을 내걸고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93년에 세계

수출량의 46%를 차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게다가 그 70%가 역내거래라는 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것은 각국의 경제와 기업의 본능적인 움직임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특색은 그 다양성에 있다.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제2차세계대전까지 유럽, 美國 및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원료, 식료품등의 1차 생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했다. 독립후, 아시아제국은 공업화를 추진했는데, 자국상품으로 수입품을 대체시키기 위한 수입대체 공업화였다. 물론, 선진국과는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두터운 보호정책을 채택했다.

이와같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업화로 한국이나 싱가포르는 1970년대 초반에 제조업 비율이 25% 정도에 달했다. 그러나 아시아 諸國은 中國이나 인도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소득수준도 낮기 때문에,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 대체 공업화는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본격적인 수출을 목표로 한 공업화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70년대 후반에 제조업 비율을 30%에서 35% 정도로 높인 이후 「NIES(신흥공업경제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 NIES 제국의 수출은 거의가 공산품으로서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선진국과의 국제 경쟁력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다.

80년대 들어, 제2차 석유위기에 따른 선진국의 불황으로 동남아시아 제국은 당시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1차생산품의 시황 정체로 무역경상수지의 적자·재정적자·대외채무의 증가로 타격을 입었다. 각국정부는 수입대체공업화에서 본격적으로 수출지향 공업화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각국은 보호정책에서 규제완화, 수입제한의 철폐, 민간기업의 활성화, 시장원리의 활용을 도모하는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85년부터 진행된 일본의 엔고현상, '87년 이후의 NIES공업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급상승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다. 동남아시아국도 외국투자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수출액에서 차지

APEC 회원국의 1인당 GNP

(단위 : 달러)

| | | 1인당 GNP |
|--------|----|---------|
| 〈선진국〉 | | |
| 일 | 본 | 26,920 |
| 미 | 국 | 22,560 |
| 캐 | 나 | 21,260 |
| 호 | 주 | 16,590 |
| 뉴 | 질 | 12,140 |
| 랜 | 드 | |
| 〈NIES〉 | | |
| 한 | 국 | 6,340 |
| 대 | 만 | 8,728 |
| 홍 | 콩 | 13,200 |
| 싱 | 가 | 12,890 |
| 포 | 르 | |
| 〈아세안〉 | | |
| 인 | 도 | 610 |
| 태 | 국 | 1,580 |
| 필 | 리 | 740 |
| 말 | 레이 | 2,490 |
| 브 | 루 | 13,462 |
| 나 | 이 | |
| 〈기타〉 | | |
| 중 | 국 | 370 |
| 파 | 푸 | 820 |
| 아 | 뉴 | |
| 뉴 | 기 | |
| 니 | 코 | 2,870 |
| 맥 | 시 | |
| 칠 | 레 | 2,160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및 전망

| | 1994 | 1995 |
|------------|------|------|
| 〈NIES 전체〉 | | |
| 홍 | 5.7 | 5.9 |
| 한 | 6.7 | 6.9 |
| 싱 | 7.0 | 6.0 |
| 가 | | |
| 포 | | |
| 르 | | |
| 대 | 6.4 | 6.6 |
| 만 | | |
| 〈동남아시아 전체〉 | | |
| 말 | 8.6 | 8.4 |
| 레이 | | |
| 시아 | 6.7 | 7.0 |
| 필 | 4.0 | 5.5 |
| 리 | | |
| 핀 | 4.0 | 5.5 |
| 판 | | |
| 태 | 8.2 | 8.5 |
| 국 | | |
| 베 | 9.0 | 10.0 |
| 트 | | |
| 남 | | |
| 〈남아시아전체〉 | | |
| 방 | 5.0 | 5.5 |
| 글 | | |
| 라 | | |
| 데 | 5.0 | 5.5 |
| 시 | | |
| 인 | 4.8 | 5.5 |
| 도 | | |
| 파 | 5.5 | 6.5 |
| 키 | | |
| 스 | | |
| 탄 | | |
| 중 | 10.0 | 9.0 |

〈자료〉 아시아개발은행 '94년차보고서

하는 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은, '85년부터 '90년 동안에 인도네시아가 15%에서 25%로, 태국이 38%에서 65%로, 말레이시아가 27%에서 45%로 상승했다.

이러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출증가는 域内外 공히 현저하고, 域内國의 상호의존관계도 높아졌다. 세계의 수출은 '85년 1조9,221억달러, '92년 3조6,403억달러로 1.9배가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의 아시아수출은 4,864억달러에서 1조388억달러로 2.1배가 되었다. 그 중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출은 3,063억달러에서 6,904억달러로 2.3배로 년율 12.3%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NIES는 1,140억달러에서 3,405억달러로 3.0배(연평균 16.9%) 성장했다. 세계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비중은 '85년 25.3%에서 '92년 28.5%로 상승했다.

日本, NIES, 中國, 美國을 합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내무역(수출·수입)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같이 NIES에 각국이 참여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데, 중남미, 베트남, 인도, 몽고, 이스라엘, 이란 등

| | 수 출 | 수 입 |
|---------|-------|-------|
| 일 본 | 2,090 | 1,143 |
| N I E S | 2,221 | 2,335 |
| 아 세 아 | 830 | 758 |
| 중 국 | 644 | 615 |
| 미 국 | 1,177 | 2,110 |
| 計 | 6,962 | 6,961 |

〈자료〉 아시아경제독본. 동양경제신문사

이 APEC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이번의 APEC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2020년까지의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제기되었다.

APEC제국은 2000년부터 무역·투자장벽을 없애고, 선진국과 NIES(美國, 호주, 뉴질랜드, 일본)은 2010년까지 역내의 통상·투자에 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하고, 2020년에는 全APEC 회원국이 모든 장벽을 철폐한다.

에너지 소비 두배로

지금까지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국가는 선진국이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2010년에는,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선진국의 비율은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舊 소련권이 15%, 개발도상국은 현재 27%에서 4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간에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국가는 현재의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다.

〈표-1〉은 IEA(국제에너지기구)의 “World energy Outlook, 1994”에서 본 아시아지역의 1차 에너지 수요 예측이다. 여기에서 아시아지역이란 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상 9개국의 동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이상 3개국의 남아시아) 및 中國 등 13개국

〈표-1〉 아시아의 1차에너지 수요전망

(단위 : 석유환산백만톤, %)

| | 1993 | | 2000 | | 2010 | | 1993-2000 연평균증가율 |
|----------|-------|-------|-------|-------|-------|-------|---------------------|
| | 물 량 | 구 성 비 | 물 량 | 구 성 비 | 물 량 | 구 성 비 | |
| 석 탄 | 765 | 55.7 | 1,015 | 55.2 | 1,499 | 52.3 | 4.0 |
| 석 유 | 466 | 33.9 | 597 | 32.4 | 945 | 33.0 | 4.2 |
| 천 연 가 스 | 87 | 6.3 | 125 | 6.8 | 241 | 8.4 | 6.2 |
| 원 자 력 | 27 | 2.0 | 42 | 2.3 | 73 | 2.5 | 6.0 |
| 수 력, 기 타 | 29 | 2.1 | 61 | 3.3 | 108 | 3.8 | 8.0 |
| 計 | 1,374 | 100.0 | 1,840 | 100.0 | 2,866 | 100.0 | 4.4 |

〈자료〉 IEA. World energy Outlook/석유연맹조사단자료

을 말한다.

아시아의 1차 에너지 수요는 1993년 석유환산 13억7,400만톤, 2010년에는 28억6,600만톤으로 약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평균 4.4% 증가)

이 예측은 1991년부터 2010년간 장기 경제성장률이 동아시아 6.2%, 남아시아 4.9%, 중국 7.9%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증가량 14억9,200만톤을 전량 석유로 환산한다면 2,984만b/d로서 OPEC의 생산능력을 전

〈표-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제품 수요전망

(단위 : 千%, %)

| 나 | 구 | 1993 | | 1997 | | 2000 | | 평 균 증 가 율 | |
|---|---------|-------|-------|--------|-------|--------|-------|-----------|---------|
| | | 수 요 | 구성비 | 수 요 | 구성비 | 수 요 | 구성비 | 93/97 | 93/2000 |
| 프 | 중 국 | 95 | 3.5 | 132 | 3.8 | 187 | 4.4 | 8.6 | 10.2 |
| | 동 아 시 아 | 433 | 9.1 | 553 | 9.4 | 622 | 9.1 | 6.3 | 5.3 |
| | 남 아 시 아 | 64 | 4.5 | 96 | 5.0 | 124 | 5.0 | 10.7 | 9.9 |
| | 호 주 | 6 | 0.9 | 3 | 0.4 | 0 | 0.0 | -15.9 | - |
| | 計 | 598 | 6.3 | 784 | 6.5 | 933 | 6.5 | 7.0 | 6.6 |
| 타 | 중 국 | 652 | 24.3 | 1,015 | 29.0 | 1,283 | 30.4 | 11.7 | 10.2 |
| | 동 아 시 아 | 596 | 12.5 | 781 | 13.3 | 932 | 13.6 | 7.0 | 6.6 |
| | 남 아 시 아 | 112 | 7.9 | 163 | 8.5 | 203 | 8.2 | 9.8 | 8.9 |
| | 호 주 | 306 | 44.0 | 314 | 42.6 | 326 | 41.9 | 0.6 | 0.9 |
| | 計 | 1,666 | 17.5 | 2,273 | 18.9 | 2,744 | 19.2 | 8.1 | 7.4 |
| 중 | 중 국 | 997 | 37.2 | 1,304 | 37.2 | 1,595 | 37.8 | 6.9 | 6.9 |
| | 동 아 시 아 | 1,949 | 41.0 | 2,598 | 44.1 | 3,148 | 46.1 | 7.5 | 7.1 |
| | 남 아 시 아 | 871 | 61.6 | 1,221 | 63.7 | 1,557 | 63.2 | 8.8 | 8.7 |
| | 호 주 | 274 | 39.4 | 287 | 38.9 | 313 | 40.2 | 1.2 | 1.9 |
| | 計 | 4,091 | 42.9 | 5,410 | 44.9 | 6,613 | 46.2 | 7.2 | 7.1 |
| 중 | 중 국 | 675 | 25.2 | 719 | 20.5 | 757 | 17.9 | 1.6 | 1.7 |
| | 동 아 시 아 | 1,249 | 26.3 | 1,336 | 22.7 | 1,421 | 20.8 | 1.7 | 1.9 |
| | 남 아 시 아 | 215 | 15.2 | 246 | 12.8 | 321 | 13.0 | 3.4 | 5.9 |
| | 호 주 | 40 | 5.7 | 26 | 3.5 | 24 | 3.1 | -10.2 | -7.0 |
| | 計 | 2,179 | 22.8 | 2,327 | 19.3 | 2,523 | 17.6 | 1.7 | 2.1 |
| 기 | 중 국 | 263 | 9.8 | 334 | 9.5 | 402 | 9.5 | 6.2 | 6.2 |
| | 동 아 시 아 | 527 | 11.1 | 620 | 10.5 | 712 | 10.4 | 4.1 | 4.4 |
| | 남 아 시 아 | 152 | 10.8 | 192 | 10.0 | 257 | 10.4 | 6.0 | 7.8 |
| | 호 주 | 70 | 10.1 | 107 | 14.5 | 115 | 14.8 | 11.2 | 7.3 |
| | 計 | 1,012 | 10.6 | 1,253 | 10.4 | 1,486 | 10.4 | 5.5 | 5.6 |
| 제 | 중 국 | 2,682 | 100.0 | 3,504 | 100.0 | 4,224 | 100.0 | 6.9 | 6.7 |
| | 동 아 시 아 | 4,754 | 100.0 | 5,888 | 100.0 | 6,835 | 100.0 | 5.5 | 5.3 |
| | 남 아 시 아 | 1,414 | 100.0 | 1,918 | 100.0 | 2,462 | 100.0 | 7.9 | 8.2 |
| | 호 주 | 696 | 100.0 | 737 | 100.0 | 778 | 100.0 | 1.4 | 1.6 |
| | 計 | 9,546 | 100.0 | 12,047 | 100.0 | 14,299 | 100.0 | 6.0 | 5.9 |

기타제품.....LPG, 아스팔트, 윤활유등

동아시아.....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자료〉 석유연맹조사단자료

부 흡수해버리는 규모이다. 향후 17년간, 전과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 1차에너지 소비증가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다. 中國은 이미 경제가 과열기미를 보여, 작년의 물가상승률이 20%를 넘어 정책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APEC의 자유화 목표가 설정됨으로써 각국의 수출지향공업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고도경제성장 정책이 가속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의 진보도 있을 것이고, 개발도상국도 에너지 소비의 증대에 따라 에너지절약에도 노력할 것이다. 환경의 제약도 심해질 것이다. 어쨌든, 2010년 아시아의 에너지 소비는 현재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1〉에서 1차에너지 구성비를 보면, 석탄이 '93년 55.7%, 2010년 52.3%로 소비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인도의 영향으로, 중국은 장기적으로도 석탄이 7할을 유지할 전망이

다.

중국의 석탄매장량은 1,145억톤으로 세계 석탄자원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는 625억4,800만톤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의 석탄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가 아시아의 에너지 문제의 반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석유는 '93년 4억6,600만톤(932만b/d)으로 3.9%, 2010년에는 9억 4,500만톤(1,890만b/d)으로 33.0%가 될 것이다. 증가량이 4억7,900만톤(958만b/d)으로 정확히 2배가 된다. 석유의 구성비는 장기적으로도 1차 에너지의 30%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93년 8,700만톤에서 2010년 2억 4,100만톤으로 약 2.8배, 원자력은 2,700만톤에서 7,300만톤으로 2.7배, 수력발전기타가 2,900만톤에서 1억800만톤으로 3.7배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표-2〉는 일본의 석유사정조사단이 정리한 아시아

국별 석유제품 수요전망

(단위 : 천B/D, 년평균%)

| | 2000 | | 1993 | |
|-----------|--------|-------|-------|--------|
| | 수요 | 증가량 | 수요 | 증가율(%) |
| 중 국 | 4,224 | 1,542 | 2,682 | 6.7 |
| 〈동아시아〉 | | | | |
| 한 국 | 2,188 | 638 | 1,550 | 5.0 |
| 대 만 | 732 | 120 | 612 | 2.6 |
| 필 리 핀 | 420 | 160 | 260 | 7.1 |
| 홍 콩 | 362 | 150 | 211 | 8.0 |
| 인 도 네 시 아 | 1,197 | 397 | 800 | 5.9 |
| 말 레 이 지 아 | 441 | 124 | 317 | 4.8 |
| 태 국 | 900 | 638 | 528 | 7.9 |
| 베 트 남 | 120 | 54 | 66 | 8.9 |
| 싱 가 포 르 | 475 | 65 | 410 | 2.1 |
| 동 남 아 | 6,835 | 2,081 | 4,754 | 5.3 |
| 〈남아시아〉 | | | | |
| 파 키 스 탄 | 354 | 150 | 204 | 8.2 |
| 인 도 | 2,040 | 864 | 1,176 | 8.2 |
| 스 리 랑 카 | 68 | 34 | 34 | 10.4 |
| 남 아 시 아 | 2,462 | 1,048 | 1,414 | 8.2 |
| 호 주 | 778 | 82 | 696 | 1.6 |
| 총 계 | 14,299 | 4,753 | 9,546 | 5.9 |

태평양의 석유제품 수요 전망이다.

수요증가가 큰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이고, 그외의 국가는 증가량이 십수만 b/d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국가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로는 7년간 4,753천b/d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3〉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능력 및 수요량의 실적 및 전망이다. 남아시아는 507천b/d로 능력부족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인도가 '97년부터 2001년에 걸쳐 1,878천b/d의 증설을 검토중이다. 〈표-2〉의 구성비대로, 경질화의 진행도 정제능력 증가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휘발유가 지역전체로 볼때 '93년 17.5%에서 2000년 19.2%로 1.7포인트 상승할 것이고, 특히 중국이 24.3%에서 30.4%로 6.1포인트나 상승될

전망이다. 중간유분도 전체로 42.9%에서 46.2%로 3.3포인트 상승 특히 동아시아는 41.0%에서 46.1%로 5.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질화와 함께 품질향상 문제도 있다. 휘발유 무연화, 옥탄가 향상, 경유·중유의 저유황화도 진척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질화 품질향상을 위한 2차 설비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 Caltex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2000년까지 6,650천b/d의 정제능력을 증설하려면 총투자액은 아시아에서 2000년까지 아시아 역내만 보더라도 신규증설에 필요한 액수는 460억달러라고 추정하고 있다. 자금조달, 채산 전망도 향후의 과제이다. ♣ 〈순간석유정책〉

〈표-3〉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능력 및 수요

(단위 : 천b/d)

| | 1993 | | | | 1997(전망) | | | | 2000(전망) | | | | 전 제 조 건 | |
|-------|--------|-------|-------|------|----------|--------|--------|------|----------|--------|--------|------|---------|------|
| | 정제능력 | 처리량 | 수 요 | 과부족 | 정제능력 | 처리량 | 수 요 | 과부족 | 정제능력 | 처리량 | 수 요 | 과부족 | 1997 | 2000 |
| | A | B | C | B-C | A | B | C | B-C | A | B | C | B-C | | |
| 중 국 | 3,160 | 2,436 | 2,682 | △246 | 4,030 | 3,103 | 3,504 | △401 | 4,340 | 3,472 | 4,224 | △752 | 가동율77% | 80% |
| 한 국 | 1,675 | 1,490 | 1,550 | △ 60 | 2,501 | 2,250 | 1,947 | 303 | 2,801 | 2,521 | 2,188 | 333 | 90% | 同 左 |
| 태 만 | 600 | 499 | 612 | △113 | 900 | 792 | 676 | 116 | 1,120 | 986 | 732 | 254 | 88% | 同 左 |
| 필 리 핀 | 300 | 286 | 260 | 26 | 396 | 376 | 341 | 35 | 396 | 376 | 420 | △ 44 | 95% | 同 左 |
| 홍 콩 | 0 | 0 | 211 | △211 | 0 | 0 | 256 | △256 | - | | 362 | 362 | - | - |
| 인도네시아 | 867 | 825 | 800 | 25 | 1,040 | 988 | 1,012 | △ 24 | 1,040 | 988 | 1,197 | △209 | 95% | 同 左 |
| 말레이시아 | 233 | 234 | 317 | △ 83 | 495 | 446 | 370 | 76 | 495 | 470 | 441 | 29 | 90% | 95% |
| 태 국 | 355 | 363 | 528 | △165 | 730 | 693 | 750 | △ 57 | 770 | 732 | 900 | △168 | 95% | 同 左 |
| 베 트 남 | 1 | 1 | 66 | △ 65 | 139 | 125 | 93 | 32 | 164 | 148 | 120 | 28 | 90% | 同 左 |
| 싱가포르 | 1,062 | 1,064 | 410 | 654 | 1,199 | 1,079 | 443 | 636 | 1,199 | 1,079 | 475 | 604 | 90% | 同 左 |
| 동아시아 | 5,093 | 4,762 | 4,754 | 8 | 7,400 | 6,749 | 5,888 | 861 | 7,985 | 7,300 | 6,835 | 465 | 평균 91% | 同 左 |
| 파키스탄 | 91 | 90 | 204 | △114 | 91 | 90 | 279 | △189 | 121 | 121 | 354 | △233 | 100% | 同 左 |
| 인 도 | 1,065 | 1,065 | 1,176 | △111 | 1,385 | 1,316 | 1,588 | △272 | 1,878 | 1,784 | 2,040 | △256 | 95% | 同 左 |
| 스리랑카 | 50 | 49 | 34 | 15 | 50 | 50 | 51 | △ 1 | 50 | 50 | 68 | △ 18 | 100% | 同 左 |
| 남아시아 | 1,206 | 1,204 | 1,414 | △210 | 1,526 | 1,456 | 1,918 | △462 | 2,049 | 1,955 | 2,462 | △507 | 평균 95% | 同 左 |
| 호 주 | 705 | 657 | 696 | △ 39 | 705 | 670 | 737 | △67 | 705 | 670 | 778 | △108 | 95% | 同 左 |
| 計 | 10,164 | 9,059 | 9,546 | △487 | 13,661 | 11,978 | 12,047 | △69 | 15,079 | 13,397 | 14,299 | △902 | 평균 88% | 89% |